01 목회권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매일 빛을 밝혀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과 섬김의 손길을 내밀어 격려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02 주일예배안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변경되어 20명 비대면 예배로 전환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광주제일명성교회' 검색)

03 성탄감사예배

성탄감사예배는 오전 9시, 11시 두 번 드리게 됩니다.

04 장학헌금

교회학교 학생 중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강학금을 교회에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이 한 분씩 1-2만원의 강학헌금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05 2021년 교회달력

2021년 교회달력이 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06 항존직 은퇴식

다음 주일(27일)에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 성탄절 행사 안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자 교회에서 커피(음료)와 선물, 떡, 2021년 새해 말씀카드를 나눠 드립니다. 커피와 음료는 카페 테라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시 간: 12-14시

방 법 :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연락처: 010-4337-3941, 010-5124-4900, 010-7547-8805 주 문 : 본인의 이름과 도착시간, 음료를 문자로 남기고 방문 후, 수령

교우 소식

입대 : 안정호(구도영집사 아들), 22일 5사단 훈련소 성탄절 행사준비에 도움을 주신 분들 : 국경규집사, 김미성집사

-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 2. 코로나19 종식과 의료진을 위하여
-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 4.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5.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부목사 문성우, 박순영, 장중현

전도사 김상태 원로장로 최진호

은퇴장로 석용문, 윤동섭

시무장로 박인순

지휘자 강신모, 윤정민, 한경민

반주자 김범준, 김슬기, 박은영, 하은미

12월 20일 7권 51호

*	여 는	찬 양		주 기 도 문	
*	예배	선 포		인 도 자	
*	찬	송		9장	
*	공동	기도문		다 같 이	
*	신 앙	고백		사 도 신 경	
	찬	송		105장	
	기	도	김미숙 권사	김만수 권사	장재욱 집사
		소 식 족환영		인 도 자	
				눅 1:30-38	
	8 8	봉 독	제언희 집사	김인숙 집사	정선영 집사
	찬	양	하은미 성도	박은영 성도	김범준 성도
	오늨	의말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식이다"
		-1 - 0		윤호식 목사	
	봉	헌		123장	
*	친	교		다 같 이	
*	송	영	진리와 생명되신 주(630장)		
*	축	도		윤호식 목사	
_		010111 74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오후1시 오후7시

주	일	4	1	 ₽	예	배
찬	·····				112정	ŀ
신			• •		1126	3
기	도				박은영	\$
성	경			മ	. 1:17-	-18
설	교			빅	·순영 !	목사
축	도			빅	·순영 !	목사

코로나19의 2.5단계로 12월23일까지 수요예배를 쉽니다.

12/21(월)	古 0.15-21
12/22(화)	아 2:10-12
12/23(수)	호 1:10
12/24(목)	시 98:1-2
12/25(금)	성탄절 낮예배
12/26(토)	에 2:12-23

12/21(원) 노 8:10-21

줌(zoom)으로 비대면예배를 드립니다.

개들		
ł .		

■ 대3	표기도	1부	2부	3부
12	/27	엄영애	국영숙	박인순
1	/3	한옥희	이선옥	석용문
1/	10	노옥숙	오현애	정유진

■ 성경 봉독	1부	2부	3부
12/27	이덕수	신정희	김미성
1/3	홍순자	김광재	이현경
1/10	이종길	노미정	김유림

1. 월례회 및 각종 모임

각종 부서 월례회 및 모든 종류의 모임을 중단합니다. 특별한 지침이 있기 전까지 공모임 뿐 아니라 교회 내 친교 모임 또한 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 난 주 등 록

202	■ 2020년도 등록자									
신주희	박선민	이미정	김지영	김일곤	장상민	문병진				
최병주	윤미란	김완수	이향호	변춘식	조하나	강선경				
심주원	진미숙	손미정	김성호	홍성인	황수흔					
남기해	이원규	심은숙	이응창	정희숙	박혜미					

제 목: "메시아를 기다리는 성령의 사람 시므온"(누가복음 2:25-35)

의롭고 경건하고 위로를 기다리며 성령이 그 위에 있는 자였던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이 말은 위로 가 필요하다입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이스라엘의 위로임을 알았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기다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시류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지기 편한 대로 자기 이익에 맞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고 살았습니다. 또한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경건하여로 번역된 단어 윤라베스는 "확실하게 붙잡은"이라는 듯합니다. 세상보다도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 하게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워워할 줄 알고 하나라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므온이 메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을 믿었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시므온이 메시아 를 기다리며 성령의 시담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 야 합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메시아를 찬양하며 증거하였듯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도 메시아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유혹 고난이 다가운다고 해도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바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1:10-11"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 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자신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은 분명한 미래의 사 실이라는 것입니다. ◆마24:30"그 때에 인자의 장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 하며 그들 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다는 예언은 무려 191번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언이 이사야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오 시기 전 무려 700년 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300회 이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기록보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록이 더 많 습니다. 이것은 신약성서 전체 구절 가운데 2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재림에 관한 언급이 없는 책은 요한2서, 3서, 빌레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뿐입니다. 구약의 주제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 다면 시약의 주제는 영광중에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약속 있는 예언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흐르 고 있는 메시아사상은 신약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와서 재림하실 예수님으로 그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에게 기대와 화희 기쁨과 위로 소망을 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약5:7-8"그러므로 형 제들아 주께서 강립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 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성경을 마감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맨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계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언젠가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대와 소 망을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라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기다림이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일 때도 있지만 진정한 기다림은 반드시 큰 소망을 가져오고 능력을 가져옵니다. 우리도 이번 성탄점을 맞이해서 시므온처럼 구남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지금도 계시지만 진정으로 나에 게 챃아오시는 주남을 내가 성령 축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 십일조

강예식 김은지 문성우 박정옥 박춘주 손막동 엄영애 이명호 이혜숙 장중현 정기숙 조옥순 채석진

■ 감사헌금

강대희 강예식 강용중 강인환 권경자 김광재 김영춘 김은지 김지영 문다윗 문성우 문지연 박내성 박장금 오현애 유흥재 윤호식 이기옥 이복순 이혜숙 장중현 조미애 채석진 하상호 하은미 한옥희

■ 선교헌금

강예식 김은지 김학수 정명희 조미애 조옥순 황인순

■ 주정헌금

김귀근 김만수 김일곤 박인순 변성진 엄만유 윤선례 이원규 이응창 이향실 이혜숙 정영규 제언희 조근석 최경란 최영식

■ 장학헌금

유흥재 하은미

■ 건축헌금

서승우

■ 일천번제

김정혜

온라인헌금안내

국민은행 6338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예) 십일-홍길동, 감사-홍길동

	축 구	탁 구	바 둑	족 구	등 산	볼 링	실버합창
부장	장재욱	김교민	정성환	석용문	김학수	홍순자	채석진
총무	김병조	박인순	이종구	이승수	한상준	한경민	장복실